

대구주보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생명 주일)
2020. 05. 03. (가해) 제2212호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연을 것이다.” (요한 10,9)



『착한 목자』, 루카스 크라나흐, 1540년경, 독일 에르푸르트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사명감



교구 성소국장 | 김병수 루카 신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매년 성소 주일이 되면 신학교와 수도원에서는 성소 주일 행사로 시끌벅적할 텐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성소 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교회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 수도자와 예비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성소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TV 뉴스에서 인터뷰 장면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여간호사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집에도 못 가면서까지 이렇게 치료에 전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간호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사명감이죠!” 이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간호사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와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였지만,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였습니다. “사명감이죠!” 지금도 제 뇌리에 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족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이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와 주신 의사, 의료진, 119 구조 대원,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성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성소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감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그들을 생각하며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 감동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성소의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루카 10,2) **궤**

성소에 관한 표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6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사제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그들 직무에 보내는 지지를 **고통, 감사, 용기, 찬미**, 이 네 가지 핵심 단어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제57차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다시 한번 이 표현들을 살펴보며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이번 성소 주일 복음 구절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 구절은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폭풍우 치던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마태 14,22-33 참조) 그분께서는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 당신을 만나러 오라고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소에 관한 첫 번째 표현은 **‘감사’**입니다. 올바른 항로를 향하여 배를 저어가야 하는 과제는 높은 데서 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한편, 키잡이가 되시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열어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성소를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성소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표현인 **‘용기’**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어 우리

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또한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고단함’**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 우리 삶을 바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체적 성소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역풍이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파도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은 **‘찬미’**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찬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같은 내적 자세를 함양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께 머무신 주님의 눈길에 감사드리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하시며, 용감하게 당신의 성소를 받아들여주시어, 당신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영원한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특히 이 성소 주일에,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고단함을 이겨 내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온 세상을 향한 찬미의 노래가 되기를 빕니다. 동정 마리아시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교황, 여성 헌신 강조

2020년 4월 13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양서희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인 4월 13일 교황청 사도궁 도서관에서 부활 삼중기도를 바친 후, 여성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언급했다.

교황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선포했던” 여인들에 대한 복음을 들은 후, “이 보건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헌신하고 있음을 떠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교황은 여성들이 “의사, 간호사, 경찰, 교도관, 생필품 판매원”으로 일한다며, 특히 “집에 격리되어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식구들을 돌보는 수많은 어머니와 자매들”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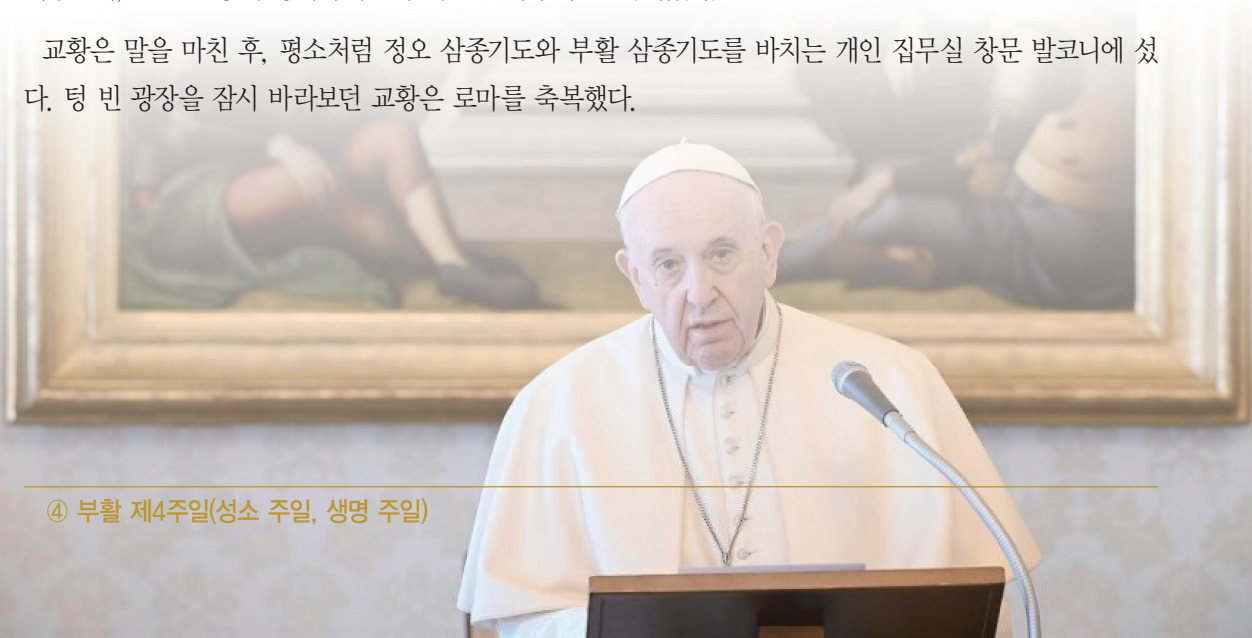
이어 때때로 여성들이 “감당하기 너무나 무거운 삶의 상황으로” 폭력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황은 “주님이 이 여성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여성들을 지원하도록” 기도하자고 청했다.

아울러 교황은 다시금 코로나19 사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부활 시기 동안”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에 관심과 애정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스페인을 언급했다. 교황은 “기도해야 할 국가들은 많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저는 모든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교황은 부활 인사도 잊지 않았다. 교황은 부활을 축하하며 모든 이에게 “기도를 통해 일치 속에 머무르며, 헌신을 통해 형제자매로서 서로 도와주기”를 독려했다.

교황은 말을 마친 후, 평소처럼 정오 삼중기도와 부활 삼중기도를 바치는 개인 집무실 창문 발코니에 섰다. 텅 빈 광장을 잠시 바라보던 교황은 로마를 축복했다.



신석복 마르코 (1828~1866년)



경상도 밀양의 명례(현 경남 밀양읍 명례리) 사람인 신석복(申錫福) 마르코는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던 신자로, 1866년의 병인박해 때 창원 마포로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오 야고보 등과 함께 대구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때는 마르코가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해온 지 1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이에 앞서 대구 포졸들은 마르코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명례로 들이닥쳐 그의 집을 찾아낸 뒤 재산을 탈취하였다. 또 여러 날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마르코가 돌아올 만한 길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해 가산이라는 곳에서 마르코를 만나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한 뒤, 즉시 체포하여 밀양으로 압송하였다.

포졸들은 밀양에서 하루를 머무는 동안 마르코에게 무수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대구로 끌고 갔는데, 이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르코의 형제들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대구로 가는 일행을 뒤쫓아갔다. 그들 일행을 만난 마르코의 형제들은 포졸들과 수작한 뒤, 마르코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한 푼도 포졸들에게 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로 인해 신석복 마르코는 대구로 가는 동안 자주 능욕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대구에 도착해서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 유혈이 낭자하고 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저를 놓아주신다 하여도 다시 천주교를 봉행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은 이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다시 마르코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며칠을 옥에 가두었다가 교수형을 집행하였으니, 이때가 1866년 3월 31일(음력 2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이후 마르코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 | | | | | |
|----------------|---|----------------|-------------|------------|------------|
| 제 1 독 서 | 사도 2,14-36-41 | 제 2 독 서 | 1베드 2,20-25 | 복 음 | 요한 10,1-10 |
|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는 ◎ 알렐루야. | | | |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 | | | |
| 영 성 체 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네. 알렐루야. | | | | |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전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라디오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생명 주일)

주일미사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집전**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09: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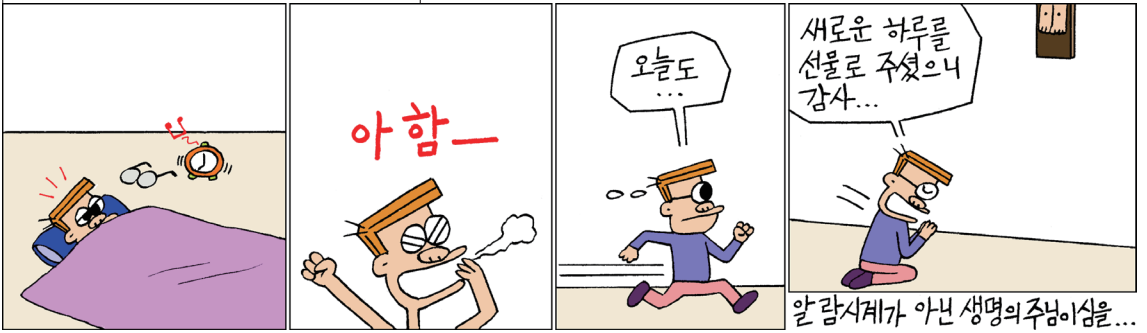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 05:00 / 주일미사 재방송 19:00

(대구 FM 93.1MHz, 포항 FM 96.9MHz, 김천 FM 100.5MHz, 안동 FM 100.7MHz)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는 건?

박성규 엘리지오



⑥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생명 주일)

제10회 생명 주일 담화

‘하느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십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의 생명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영화 『저 산 너머』 절찬 상영중!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에 전하는 위로와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故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오세암’을 비롯해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故 정채봉 동화작가의 동명소설 영화화

상영관 : CGV 대구 아카데미, CGV 대구 스타디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상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성지와 함께 꿈과 희망을...
(주)성지여행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어른심을 모신다
 성모님 사랑 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
 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
우성네트웍
 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동단지 전자관 2층 71호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재수(요한) 신부
1983년 5월 5일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성소자 모임

일시: 매주 둘째 일요일(상담 언제나)
장소: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대전 분원
문의: (010)8683-6848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5.19(화) 14:00~20(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5.9~12(추자도) / 5.20~23(추자도)
5.15~17 / 5.25~27 / 5.29~31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가톨릭신학원 개강 취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가톨릭신학원 1학기 강의 전체를
잠정 취소하였음을 알립니다.
문의: 660-5105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5월 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월 19:30, 계산문화관 5층
서류: 교적증명서
문의: (010)3516-1911 / (010)3529-3898

2020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18(월)~29(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가톨릭 요섭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http://www.footfather.com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밀알회 후원자 모집

교구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밀알회가 함께합니다.
형제적 사랑 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위치: 대구 동구 방촌로1길 17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시설급여대상자)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채용 | 안내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 670-5959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 척합병원 3층
청라언덕(산남)역 9번출구 진로타워, 053-422-3334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평의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2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출(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